

다짜고짜 잇단 흉기 테러... 시민들 불안하다

동티모르인이 총장로서 행인 찌르고 주부가 흉기 휘둘러 태국인여성 습격한 고교생 등 광주 10일새 3차레나 발생

광주 도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갑부 립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10일 사이에 벌써 3차례나 시민 상대 '흉기 테러'가 발생했다.

특히 범인들은 도심 한복판 등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있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느끼는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강력 범죄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행인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동티모르 국적 외국인 노동자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35분께 광주

시 동구 총장로 한 극장 앞에서 마주 오던 행인 B(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딸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도심 한복판에서 도망가는 B씨를 70~80m 가량 쫓아가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4년 3월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A씨가 2개월 전 전남공단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중국인 노동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며 "사건 당일 B씨를 자신을 폭행한 중국인으로 착각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날 0시11분께 서구 화정동 한 아파

트에서는 주부 김모(43)씨가 길을 지나던 한모(여·23)씨에게 문구용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 평소 우울증을 겪고 있던 김씨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걷던 한씨를 "저기요"라고 불러 세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에는 광산구 월계동 한 상가 주차장에서 고등학교생 김모(16)군이 태국인 여성(21)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강군은 이날 태국인 여성을 발견하고 성추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이달 들어 시민 상대 갑부림 사건이 3차례나 발생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알코올 중독자 심모(52)씨가 광산구 한 아파트 앞 상가에서 시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됐고, 앞서 지난 8일에는 정신지체 3급인 1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김모(49)씨가 광산구 여등산 등산로에서 등산객 이모(63)씨를 찌러 살

해해 최근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김해영(여·28·북구 양산동)씨는 "예전에는 인적이 드문 장소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흉기 테러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기 무서울 정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범죄가 환경적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급기야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선우 광주대 경찰·범·행정학과 교수는 "자기 통제가 약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공권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공동체적 유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첫 승소

제조업체 배상 판결...광주·전남 200명 등 추가소송 예고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안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치료 중인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승소하면서 가습기 피해 관련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피해자가 광주·전남 200여명 등 전국적으로 5000명이 넘어섰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최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0명이 제조업체 세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류는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 피해자 부모에게 각각 1억원,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3000만원, 치료 중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 등 10명을 포함한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당초 이들은 옥시레킷벤키저·한빛화학·롯데쇼핑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업체와 조정이 성립됐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하다가 폐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치료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크게 늘고 있다. 광주·전남 거주자만 7월말까지 192명(광주 108명, 전남 84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는 광주 24명(22%), 전남 26명(31%)으로, 전국 평균 20%보다 높았다. 여기에 광주시와 전남도에 설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본부'에 15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15건(광주 8건, 전남 7건)을 합하면 200건을 훌쩍 넘어선다.

전국적으로는 10월말 현재 5060명에 달했다. 이 중 사망자는 20.8%인 1055명이었다.

지난해 옥시레킷벤키저의 런던 본사를 향한 방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맹정수씨는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하지만 제조업체인 세류는 없어져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맹씨는 또 "이번에 국가 상대 소송은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했지만, 환경단체와 함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국가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낼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술취한 대학생에 맞아

30대 남성 의식불명

술에 취한 대학생에게 폭행당한 30대 남성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광주북부경찰은 15일 행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상해)로 대학생 박모(19)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 14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한 편의점 앞 인도에서 길가던 A(32)씨를 폭행,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군은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자리를 이동하던 중 A씨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소망트리야, 소원을 들어줘” 광주 흥중어린이집 어린이들과 북구청 청년간부회 임원들이 15일 광주 북구청 1층 로비에 설치된 소망트리에 소망을 적은 카드를 매달고 있다. 소망트리는 오는 18일까지 전시되며 소수의 사연을 선정, 연말에 소원을 이뤄줄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

‘야산 도박장’ 5억 쟁긴 조폭 등 20명 적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야산에 도박장을 차려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상습도박)로 나모(49)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7월 전북 김제·진안군 야산에 텐트와 간이시설을 갖춘 도박장을 차리고 1회 판돈 300만원의 ‘산도박’(속칭 아도사키)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 등 조직폭력배들은 일일 평균 20~30명을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판돈의 10%를 자릿세 명목으로 받아 하루 평균 500만~1000만원씩 총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쟁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폭력배는 도박판 주관하는 ‘장고장’, 모집책, 달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쟁기는 ‘꽂지’, 도박자를 운송하는 ‘문방’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나씨 등 조직폭력배들은 일일 평균 20~30명을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판돈의 10%를 자릿세 명목으로 받아 하루 평균 500만~1000만원씩 총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쟁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폭력배는 도박판 주관하는 ‘장고장’, 모집책, 달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쟁기는 ‘꽂지’, 도박자를 운송하는 ‘문방’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 교통사고 사망을 300명

35년만에 ‘400명 벽’ 허문다

전남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35년만에 40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1일부터 11월14일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300명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8명보다 58명(16.2%) 감소한 수치다.

하루 평균 1명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12월말까지 36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럴 경우 1981년(395명) 이후 35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400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남은 1978년 교통사망사고 401명으로 400명대 진입한 이래 1981년 395명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1990년 1009명까지 급증, 최고조에 올랐다. 이후 점차 감소해 2008년부터 400명대를 유지하다 올해

‘400 벽’을 허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경찰청은 사망사고 줄이기 위해 지난 3월10일 전국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건강강사 116명을 ‘어르신 교통 안전지도자’로 위촉, 노인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섰다. 또 노인보행자와 운전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신발 뒤꿈치 반사지’(일명 반딧불)를 개발, 고령화에 따른 노인사고예방을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했다.

경찰청 전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전남 교통사고 사망은 지난해 대비 16.2%, 보행 사망사고는 21.9%까지 감소했다”며 “이는 반딧불 도입 등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정책을 실시, 큰 효과를 거뒀다”며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면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평가 12억7천4백 ▶ 최저가 7억1천4백
- ★ [공장] 서구 동천동 상무자동차전문학원인근 공장일지지역 토지 1,226㎡ 건물 322.35㎡ 감평가 12억1천7백 ▶ 최저가 8억5천2백
- ★ [공장] 화순군 이양면 풍평리 농공단지내 12m도로접 토지 6,600㎡ 건물 2,579㎡ 감평가 27억5천3백 ▶ 최저가 12억3천3백
- ★ [공장] 담양읍 삼관리 토지 9,902㎡ 건물 2,921㎡ 예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평가 44억5천1백 ▶ 최저가 24억9천3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9,178㎡ 건물 5,842㎡ 장성백이사거리 인근 공장지대 감평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5억5천9백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5,977㎡ 건물 2,122㎡ 동화사거리부근 공장지대 감평가 13억3천6백 ▶ 최저가 7억4천8백
- ★ [공장]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3,305㎡ 건물 1,054㎡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평가 35억2천7백 ▶ 최저가 7억9천2백

투자 추천 물건

- ★ [공장, 충전소] 광양시 진월면 진월C인근 4차선대로변 토지 12,914㎡ 공장 1,922㎡ LPG충전소 352㎡ 매매 37억5천
- ★ [공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제2산업단지내 토지 6,627㎡ 건물 4,226㎡ 매매 19억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정문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상가 28억선 교환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무인텔] 북구 유동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4천만원 이상 수익 위치좋은 매매 20억
- ★ 광천동 재개발지역내 원룸 매매

수익형 추천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요양병원 허가 취득)
- ★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터리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 6억포함) 보증금 7천 월 4백6십 매매 13억5천
- ★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대단지면 토지 5,359㎡ 건물 595.4㎡ 2층공장 매매 평당 2백5십
- ★ 광주 북구 풍향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건물 999㎡ 보증금 1억 월 6백5십 매매 17억

병원, 공장 매매 및 임대 구함 / 광주 근교 토지 급 구함 /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